

벚꽃이 늦게 핀다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마당의 벚꽃이 화들짝 피었다. 서울 여의도가 벚꽃이 비오듯 쏟아진게 일주일 전 쯤이다. 나는 벚꽃을 다른 이들보다 좀 오래 본다. 그 증거가 마당의 벚꽃이다. 사실 마당의 벚꽃은 집을 짓고 입구에 제일 먼저 심었던 토종 왕벚나무다. 유독 벚꽃에 약한 이유는 사십여년전 입대하던 날의 기억 때문이다.

그날 진해는 균형제 마지막을 즐기려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꽃구경이란 걸 실감한 날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꽃이 피고 지는게 어느 식구처럼 너무도 사소했다.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러나 벚꽃만은 다르다. 훈련소에 들어간 후 며칠간 벚꽃이 지는 걸 지켜리나게 볼 수 있어 더욱 그랬다. 바람이 불 때면 아예 꽃비가, 비가 오면 꽃물이 흘러가게 진해다. 그 광경이란 훈련소의 색다른 풍경이어서 이맘때 더욱 절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꽃은 하루 100여km쯤 북상한다는 걸 벚꽃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진해벚꽃이 만개한 지 3, 4일 후면 여의도에 벚꽃이 핀다. 올해는 4월초에 여의도 벚꽃이 개화했으므로 적어도 우리 동네도 같은 시기 벚꽃이 피어야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의도 벚꽃 질 무렵에야 우리 동네 벚꽃이 핀다. 아마도 기온 탓이리라. 벚꽃이란 식생은 지정학적 이치를 넘어서지 못했다거나 할까. 그걸 생각하면 좀 형언하기 어려운 기분이다.

그런데도 벚나무 한그루를 마당에 심던 때로부터 개화일은 일주일 가량 빨라졌다. 봄철이면 언제나 나는 벚꽃을 열흘 이상 즐기고 있다고 허풍쳐 왔던 것도 이제는 일주일쯤으로 줄었다. 여의도에 벚꽃 피고 3일 후쯤 여기서 벚꽃이 핀다. 우리 집 마당의 벚나무는 개량종과는 다른, 토종 왕벚나무라서인지 마을의 벚꽃이 질때쯤 피기 시작, 그게 바로 지금이다. 토종은 개량종이 질 때쯤 피어난다. 꽃잎은 희고 넓다. 토종의 위엄이랄까. 개량종들이 지고 나서야 은은한 자태를 피워내는 모습이 웬지 멋스럽게 느껴진다. 뒤이어 산수유며 매화꽃을 거느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여의도로 출근할 때는 열흘 이상 벚꽃 구경을 하곤 했다. 여의도 벚꽃을 보고, 그다음 곤지암의 벚꽃을 보고, 마지막으 우리 집 마당의 벚꽃을 보고 나면 온전히 봄을 만끽한거다.

그 꽃이 피고 지는 사이 세상도 개벽한 듯이 달라졌다. 요새 총선거가 끝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란게 실감난다. 어느 당의 우두머리는 목련이 필 때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거라는 말을 해서 이곳 사람들도 조금은 술렁였다. 여기도 서울과 인접한 도농복합지역인데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씩씩해했다. 굳이 이곳이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를 내놓는다고 해도 별 이슈가 될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이가 없었지만, 우리는 거론조차 될 수 없다는 감정은 숨길 수 없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그런 날엔 벚꽃은 피는 꽃과 지는 꽃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하여간 봄꽃조차 늦게 오는 동네, 시끄러울 법한 이슈에도 쫓겨 없다는게 좀 아프달까. 그리고 보면 여기는 다 닳다. 개발도 늦고 벚꽃 개화도 늦고, 물론 한탄은 아니다. 그저 그렇다는 말이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한동훈 위원장이 받은 '기대 이하' 성적표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이 새삼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실력이 검증된 '스타'의 정계 진출은 세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당은 가장 많은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역시 선전하지 못하며 참패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민주당의 집중 유세장인 용산역 광장과, 국민의힘의 집중 유세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위해 나선 예비역 해병대원을 연사로 세워 분위

기를 띄웠다. 용산역 일대는 퇴근길 직장인들과 푸른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청계광장도 비교적 많은 지지자와 직장인들이 모였지만, 20대 대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며 시청 앞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그 때보다는 한산했다. 정치현오와 막말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색다름'을 원했으나,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정치인은 민생을 다루는 직업이다. 정당의 최고위원회나 원내대책회의를 살펴보면 정쟁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민생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언급하지 않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심판론을 내세우기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나 '민생' 정책을 연설의 주요 골자로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싶다.

민주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며 후보와 지지자를 만나면서 바닥을 훑고 다녔다. 그는 유세차에 올라선 정쟁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보단 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생을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호소했다.

시장 상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후보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꿀팁'을 주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김 전 총리가 채운 것이다.

국민의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은 본인 선거에 너무 바빠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었다. 김 전 총리의 유세를 보며 정치는 민생을 다루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전 위원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 정치인으로서 매를 일찍 맞은 것이길 바라본다.

/pth7285@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음 3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만족했지만 항상 변화를 추구했다. 48년생 부부연이 또 바뀔 것 같으니 양보. 60년생 저축청약이 성공된다. 72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연인으로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4년생 이상한 사람을 만나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37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49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라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61년생 숨겨왔던 숨씨를 마음껏 발휘. 73년생 행복한 가정 이발전의 원동력이다. 85년생 누구나 항상 현재에 살고 있다.



38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유의. 50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62년생 의료계에서 성공된다. 74년생 지위를 얻고 자비심으로 존경받음. 86년생 결과가 오후에 펼쳐지게 된다.



39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5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 6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다. 75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 통함을 잘 선택. 87년생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40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다. 52년생 머리의 조언으로 고민이 해결. 64년생 되는 일이 없으니 서글프다. 76년생 1다음 2의 숫자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8년생 오늘 살아가는 길이 미래를 좌우한다.



41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53년생 즐거운 소식을 전해오니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된다. 65년생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손해가 있다. 7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89년생 하늘에는 예측할 수 있는 비바람이 있다.



42년생 자비심이 있어 존경받는다. 54년생 남편에게 내주는 잘하나 교양이 없다. 6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떨어지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7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90년생 소나기가 퍼붓다가 오후에 화창하게 갠다.



43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55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임을. 67년생 마음이 울적할수록 웃어야 복이 온다. 79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91년생 도리를 깨달으려 노력.



44년생 자녀가 발전하나 이제는 욕심은 없다. 5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또 있다. 68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 80년생 신망이 두텁고 결혼 운이 좋아 번창한다. 92년생 나무를 잘 기르면 근본적 뿌리가 튼튼해진다.



45년생 이제라도 문화센터 가서 예술방면 공부를 해보라. 57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81년생 뜻과 기개가 부모님의 가르침. 93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46년생 명문가 출신이며 사회에 공헌을 해왔다. 58년생 물려받은 유산은 없으나 늘 자신이 있다. 70년생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다 소외당할 수 있다. 82년생 사주가 관상만 못 하다 했는데. 94년생 제왕의 기운으로 공평하니 인간관계가 좋다.



47년생 말년에 자녀에게 주는 돈은 운을 장담할 수가 없다. 59년생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왔다. 71년생 만사가 순조로운 하루이다. 83년생 패기가 있고 고집이 강하니 타인과 충돌을 피하도록. 95년생 흐린 하늘이 견히 밝은 운세가 펼쳐질 듯.



김상회의四季 여자의 순정

'여자의 순정' 일부종시를 미덕으로 여기던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와 관습 안에서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던 여자의 덕목이기도 했다. 애정 문제는 알다기도 모를 알맞음이 많다. 첫눈에 반해 죽고 못 살 것처럼 극성을 떨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맹서는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던가. 그 사랑에 대한 순정은 왜 그리 여자에게만 더 강요되던가. 필자의 기억으로는 미국의 소설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갯츠비'에서 보이는 갯츠비와 에밀리 부룬테의 소설인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히드클리프의 사랑 정도나 남자의 순정으로 보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자가 남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행복하게 살았네요"로 끝나는 동화의 말미도 만약 그 이후의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분명 제2제3의 후궁을 두지 말란 법이 없다. 애달픈 사랑을 한 숙종도 그랬다. 당태종을 이어받아 즉위한 당 고종 역시 선왕의 여자를 황비로 앉히지 않았던가. 그녀가 측근무후다. 가부장적 전통이 당연하던 오랜 세월 이전부터 사랑 문제에서도 남자들은 능력이 있을수록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자들에게는 부덕(婦德)을 강조하며 도식적인 삶을 정해 놓았다.

시앓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 마음을 둔다면 마음 양이가 보통이 아니다. 역학적으로 보자면 시앓을 보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사주에 비견(比肩): 자신의 일간과 같은 오행이 더 있게 되면 남편을 나누는 형국이 된다. 관성(官星)의 지지(地支)에 공방(空亡)이 들게 되면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롭게 독수공방을 한다. 남자들이 비견이 왕旺하면 아내 자리를 나타내는 재성이 약하면서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